



# 오클랜드

##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 김경년 베드로 오일공-육구삼-공구이공  
 평협회장 :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돌-이오팔공  
 선증회장 :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 2023년 우리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홍)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2023년 9월 17일 (제2049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홈페이지: [WWW.OAKCC.ORG](http://WWW.OAKCC.ORG)

근무시간: 수(8am~5pm) 토/일(8am~5pm)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성 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영어 미사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 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지혜서 3,1-9

화답송 시편 126(125),1-2 ㄱㄴ.2ㄷㄹ-3,4-5.6(◎ 5)

-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겍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31ㄴ-39

복음환호송 1베드 4,14 참조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 알렐루야.

영성체송 마태 10,32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 정가 ]	8시	입당 287	봉헌 221	성체 188	파견 285		
	11시	입당 56	봉헌 8	성체 172	파견 286		
대축일 경축 이동	9월 17일(일)		9월 19일(화)	9월 20일(수)	9월 21일(목)	9월 22일(금)	9월 23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채성일 토마스	이명련 파트리샤	정미경 말가리다	이명련 파트리샤	장희숙 루시아	이명련 파트리샤	성령 기도회
독서	정미경 말가리다 정기환 레안델	최대연 다니엘 이정연 골롬바	정기환 레안델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이명련 아네스	성령 기도회
제의방	정인경 가브리엘라	정인경 가브리엘라	이은자 마트로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허홍숙 세실리아

■ 9월 순교자성월

- 순교자 성월은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죽임을 당한 한국 순교 성인·성녀들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 행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매 미사 후 매일미사책 172쪽 순교자성월 기도문.

■ 대축일 경축 이동

- 오늘 미사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으로 봉헌합니다. (매일미사 117쪽)

■ 봉성체

- 유니언구역 : 9/22(금)

■ 한가위(추석) 합동위령미사지향 신청

- 9월 29일(금)은 한가위입니다.  
한가위 합동위령미사가 **9월 24일(일)**에 봉헌됩니다.  
- 당일 점심은 성모회에서 전 신자를 위해 준비합니다.  
- 송편빚기: 9/23(토), 누구나 환영합니다. 점심제공  
- 미사 후에 구역대항 옷놀이가 있습니다.  
- 미사지향신청 : **9월 23일(토)까지** 미사봉헌담당자 본당북키피 주정희마리아 자매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 미사지향 신청 시 지향자와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당일 미사지향 호명 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토요일 미사전례 안내

- 9월 23(토) 11시 미사 : 성령기도회

■ 본당 창립기념일 및 야외미사

- 일시 : 10월 1일(주일) 오전 11시  
- 장소 : Roberts Regional Recreation Area  
\* 주차비가 \$5이니 되도록 카풀을 이용해 주십시오.  
\* 아침 8시 미사는 본당에서 있습니다.

■ 모임 및 회의

- 실버반 구역 : 9/20(수) 11:00 미사후 사제관 앞뜰  
- 유니온 구역 : 9/24(일) 12:30 교육관 107호

■ BBQ 행사

- 9월 20일(수) 11시 미사 후  
-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BBQ 행사가 있습니다.  
- 장소 : 사제관 앞뜰

■ 이번 주 교중미사 전례 성가는 '젊음이 넘치는 음악팀'에서 준비했습니다.

■ 공동체 기도 지향

박영자 마리아, 박영자 클라라, 조상희 마리아, 송정현 헬레나, 신정열 올리엠타, 정연중 비오, 최라파엘, 전옥분 크리스티나, 홍윤표 베드로, 황정숙 말피나, 권주선 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스아론조 발바라, 신공진 요한, 안숙모 아네스, 박인규 시몬

■ 성경 통독

- 9월 집회서 (읽기분량 : 집회서 49,1-51,30)

■ 밥나눔 안내

- 오늘 밥나눔은 주정희 마리아 자매님이 칠순을 맞이해서 티켓 6장을 무료로 드립니다.  
- 문의 : 송성숙아네스자매님(오일공 - 삼칠오 - 오일사찰)

■ 북미주 서증부 제 26 차 전체 울뜨레야 대회

-일시: 10 월 14 일(토) 오전 9:30 - 오후 4:30  
-장소: 새크라멘토 성 정혜 엘리사벳 한인 성당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문의 및 신청: 본당 울뜨레야 간사

■ 성모회 야유회

- 일시 : 9/29(금), 장소 추후 공지.

■ 안나 요아킴 라인댄싱 교실

-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오후 1:00~3:00

■ 안나 요아킴 액세서리 만들기 교실 - 10월은 쉽니다.

■ 본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파일오)

■ 오늘 헤어컷 봉사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고 김광근 도미니코 신부님 선종 1주기 연도를 준비해 주신 선종봉사회와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안나/요아킴 야유회를 지원해 주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골롬바(9/17) : 이정연  
\*효임골롬바(9/20) : 장미은, 류은정, 문지영  
\*효주아네스(9/20) : 오자영  
\*마태오(9/21): 이영기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 겸손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방향성과 '너 중심'으로 움직이는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몸과 정신/마음을 지니고 있는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나'를 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을 띠지만,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를 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이었죠. '나 중심'과 '너 중심', 어느 것을 선택할지 마음을 정하셨나요?

굳이 '나 중심-너 중심'이라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하고 있는 선택입니다. '애덕 실천' '형제적 사랑' '자비' '용서' '하느님과의 일치' 하는 표현들이 다 나 중심이 아닌 너 중심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너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선택을 실제로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너 중심을 택하겠지만, 실제 삶에서는 너 중심이기보다 자꾸만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나 중심'이라는 움직임의 근본적인 성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자기지향성이 그 자체로 이기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먼저 챙기고 싶어 하는 경향이 내가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못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몸의 차원, 정신/마음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는 단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느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예로 들어볼까요? 한 끼 두 끼 식사를 걸렀을 때, 우리는 '나'의 배고픔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마찬가지로 식사를 걸렀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배고플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내가 직접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 끼니를 걸렀으니까 배고프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신/마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받지 못했을 때의 서운함, 무시당했을 때의 원망과 분노 등의 마음은 그것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직접 느끼게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서운함이나 상처 등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미루어 짐작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 또는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하고 또 공감하는 연습이나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는 인격적으로 성숙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하더라도, 그 사람의 몸 차원, 정신 차원에서의 나 중심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성인(聖人)들은 어떠셨을까요? 참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고 그래서 여러 영웅적인 덕행과 모범의 삶을 보여주셨던 성인들이시라면,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해왔던 '나 중심성'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들이어도 우리와 똑같이 몸과 마음, 정신을 지닌 한 인간이었기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들은 여전히 나 중심을 향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분들도 허기를 느끼고 피로를 느끼고,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대낌들도 똑같이 겪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 안에 있는 '나 중심의 움직임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내 안에 나 중심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나 중심성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너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너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더라도, 몸과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성'을 없앨 수 없다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선택을 위한 첫걸음이며, 동시에 '겸손'이라는 덕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겸손 그 자체는 우리 자신을 실제 있는 그대로 아는 진실한 앎이요, 깨달음입니다."(「무지의 구름」, 13)

[가톨릭신문, 2017년 6월11일]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사시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41명	181명	222명

주일 헌금		2차헌금		교무금	Bishop's Appeal	감사 헌금	성소	선교	빈첸시오	황금빛 인생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교무금] 김현규(7-9), 정순자(9-10), 이덕용(7-8), 전문자(9)					이덕용		이덕용			

+ 미사지향

날짜	지향	봉헌자	날짜	지향	봉헌자
9/17(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9/17(일)	생 장민우	송아네스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아 /아네스		생 이병열 요셉	김엘리사벳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영문 루시아	김엘리사벳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생 김관용 케네스	김엘리사벳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생 황정숙 말찌나	김엘리사벳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티		생 양인심 엘리사벳	박클라라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스가족		생 양인심 엘리사벳	박동신 세레나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생 육승주 아오스팅	권선 클라라
	연 박인준 아브라함	박로사가족		생 김선덕 루시아	이정연 골롬바
	연 민정희 클라라	민제노베파		생 최애순 미카엘라	최애순 미카엘라
	연 옥제병 요한	민제노베파		생 임계분 레지나	박경림 클라라
	연 김마르코	가족		생 임계분 레지나	소화옥 안나
	연 부홍신 마티아	가족		생 전옥분 크리스티나	소화옥 안나
	연 김옥희 아가다	조모나셀라		생 김옥자 마리아	소화옥 안나
	연 김정탁 요셉	가족		생 주정희 마리아	김젬마
	연 김화순 안나	가족		생 천아네스	김젬마
	연 최순일 요셉	강수산나		생 신정열 올리에다	김젬마
	연 최순일 요셉	가족		생 송아네스	김젬마
	연 Terrence Franks	이에스티		생 김상실 가를로	김젬마
	연 Terrence Franks	김젬마		생 김영희 엘리사벳	김젬마
	연 돌아가신 부모님	이정연 골롬바			
	연 김재성 제이슨	김케넷스가족	9/19(화)	연 최정자 젬마	이동재 안토니오
	연 부모님	박상일 시몬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박정선	박상일 시몬			
	연 김광근 도미니코신부님	박경림 클라라	9/20(수)	연 윤천호 바오로	윤세레나
	연 한서연 수산나	김영미 클라라		연 염지우 요한	신기수 크리스티나
	연 박주웅 안드레아	박정연 헬렌		생 김상실 가를로	이베로니카
	연 부모/가족/친지	전윤자 데레사			
	연 서기현 토마스	가족	9/21(목)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허동선 마테오신부님	윤춘주 세레나
				생 조명연 마테오신부님	이에스티
				생 이영기 마테오	이에스티
생 김아레 카타리나	김학철 요한				
생 김선희 막달레나	김학철 요한				
생 김은희 마리아	김학철 요한	9/22(금)	연 박도미자 세실리아	장예은 올리안나	
생 김진희 데레사	김학철 요한				
생 김난희 말찌나	김학철 요한	9/23(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김학철 요한	김학철 요한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생 Andy Kim	김학철 요한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생 Eric Kim	김학철 요한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생 Katherine Kim	김학철 요한		연 송성호 아벨	송아네스	
생 김옥 발바라	이로사				
생 이형숙 안나	임유지 비비안나				
생 손정옥 리디아	익명				
생 이정숙 로사리아	이병열 요셉				

<p><b>대 건 한 의 원</b>  <b>한의학박사 이 준</b>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b>조미정 공인회계사</b>  <b>세금보고 및 회계감사</b>  <b>Business Consulting</b>          ☎ (925)803-0200          Fax (925)803-0204</p>	<p><b>광고 문의</b>  <b>성당 사무실</b>          510-553-9434</p>	<p><b>J &amp; J Auto Service</b>  <b>자동차 정비와</b>  <b>바디수리</b>          ☎(510)236-0550  <b>강요한</b></p>	<p><b>광고 문의</b>  <b>성당 사무실</b>          510-553-9434</p>
--	---	--	---	--